

#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9월 12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24주일(9월 12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르 8,27-35)



각자의 십자가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합니다. 아픔은 영혼의 힘입니다.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 아픔의 계단을 밟고,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번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르 8,27)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 8,29)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 8,34)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아래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먼저 ‘자신을 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리고 계세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소유한 돈이나 물건일 수도 있고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는 것, 그래서 정말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것도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또 사실은 늘 좋은 모습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

그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복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이 서로 대치될 때, 예를 들면 하다못해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상대방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서로 다를 경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내 몸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마음들, 그 마음을 부추기는 욕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 중심의 욕구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예수님 말씀은 일부러 또 다른 십자가를, 고통을 찾아서 지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의 욕구에서 벗어나는 힘겨운 과정을 잘 참고 이루어내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 나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근본적인 욕구들을 따르지 않는 것, 나만을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해주신 모습 그대로의 본성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린 본성 말입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여정 자체가 곧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가톨릭신문, 2017년 11월 19일(3070호 16면), 가톨릭 대학교 영성신학 교수 민범식 신부)



## 복음 나누기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번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